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생활공동체(공동생활팀)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영성수련기간으로 지냅니다.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공동생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 성탄절에 유아세례 받은 어린이들(이다현 이민호)을 위해 계속 기도 해주십시오.

■ < 4/4분기 중요 일정 >

1월 4일(수)-6일(금)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컨퍼런스
9일(월)-13일(금)	생활공동체 영성수련기간
28일(토)-2월9일(목)	어린이학교 졸업여행
2월 4일(토)	멋쟁이학교 신입생 O.T
5일(일)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 인원추가 배치
6일(월)-17일(금)	멋쟁이학교 봄학기 기간
9일(목)	장신대 졸업식(3명)
12일(일)	공동체운영위원회(년령별사랑방. 반주자)
19일(일)	졸업감사예배. 공동체학교 졸업식
26일(일)	공동체 총회. 겨울공동체생활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장미숙 권사 가정 (감사)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임준식 어머니 생신)

주요 교현 순환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강단을 꽃으로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2 호

2023년 1월 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새해 청년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 공동예배를 마치고 모처럼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모이기 힘들었지만 송구영신과 신년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교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방역조치와 개인의 위생으로 서로 조심하고 지내다가 모이니 좋았습니다.

모처럼 모였으니 함께 축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운 풋살 구장을 알아보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다들 그동안 운동을 하지 못해서 체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들떠 보였습니다.

푸른꿈사랑방에서도 2명의 용병을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출을 보러 갔었던 늘푸른사랑방 여자 중에서도 구경을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미도 있고 서로 합을 맞춰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는 몸, 쉽게 지쳐버리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축구를 늦게 시작한 편에 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축구를 해본 것은 장로회 신학 대학교에 들어가서였습니다. 선배들과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했습니다. 축구를 잘 못했지만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친하게 되고 넓은 운동장에서 하는 축구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수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많이 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장님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축구로 하여금 도움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방공동체에 와서 어린이학교에서 학생들과 축구를 하고 멋쟁이학교 학생들과 축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집사님들과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 다녔습니다. 막상 경기 중에는 큰 소리도 듣고 혼도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식이나 식사를 하면서 웃고 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집사님들을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랑방공동체에 머문 대부분의 남성들은 축구의 자리에 초대받았을 듯합니다. 지금에서야 중년의 나이에 젊은 사람들과 뛰어다니셨다는 것이 대단하셨다고 느껴집니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축구를 같이 해보면 개인의 성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도 알게 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과 맡은 것을 하는 것이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기도 합니다. 부족함을 채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협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원은 항상 모자라기에 마음이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올해 큰 구장에서 뒀 수 있는 인원이 모여 땀 흘리며 뛰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 말씀

“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

<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86장, 516장, (552장)

기도 :

성경 : 사무엘기하 15장

제목 :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1. 내용: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피난을 가다 (What)

<문단구분>

1절~6절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다

7절~12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다

13절~37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가다

2. 의미: 다윗이 피함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다. (Why)

1) 압살롬이 4년 동안 치밀하게 자신을 위장하여 반란을 계획하다.

2) 다윗의 전 참모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다.

3) 다윗은 믿을 사람 몇 명만 남겨두고 피난을 가다.

3. 적용: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지혜를 가지자. (How)

1)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

2) 책임 있는 자리에 갈수록 더욱 조심하자.

3)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되자.

혼자 살아보며

새해를 맞이한 요즘 저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힘들었던 전 직장에서 지금 회사로 이직을 한 뒤 큰 어려움 없이 칼퇴(칼같이 정시에 퇴근)가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들에서는 제 커리어와 상관없는 힘든 일도 많이 해야 했고 야근하는 날도 수두룩했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사무실에 앉아 회사의 프로세스나 새로 배우는 업무도 차츰 적음 중입니다. 칼퇴 덕분에 여가 활동 시간이 늘어서 삶의 질이 높아진 점도 너무 좋습니다.

벌써 자취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달라진 점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집이 좀 덜 깔끔해졌으며 생활비가 좀 더 늘어난 정도입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조카인 다현이랑 민호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자주 못 보게 됐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좋은 점은 가전이나 생활용품을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려받은 침대에서 좁게 자다가 새 침대에서 넓게 자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제 취향에 맞게 꾸민 집에 친구들을 종종 초대해서 노는 것도 즐겁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는 날이면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게임도 하고 유튜브 감상도 하고 미드 정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혼자만의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도하거나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취를 시작하며 우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저의 첫 자취는 자유와 취미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실감하며 느끼는 점은 혼자만의 행복도 좋지만 사람은 역시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교회에 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도 행복하다는 것을 이미 어렸을 적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무사히 지내고 다 같이 만나서 지난 삶을 나누는 것이 자취 전에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혼자 나와 살아보니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지내면서 배우게 되는 점이 여전히 참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방 식구들이 예전처럼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 60 : 1-3
2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편 30 : 5, 11-1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88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고린도전서 13 : 4 - 7
216

설교자
사랑방

“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며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55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이레 장성아/ 봉헌위원 : 윤경옥/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며

사랑의 세 가지 표현.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3가지로 표현합니다. 에로스는 감성적이며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정신적이며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내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신적이며 은총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성스러움, 즉 거룩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갈등의 해결법. 고린도교회는 무척이나 열심있는 교회였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분파가 생겨나고, 교만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웃을 향해 매우 실천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진정한 자아실현. 본문에서 주어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에로스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아가페 사랑은 진정한 성숙이며 참된 자아실현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곧 성화의 과정이며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명호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

엄마 냄새

“엄마. 엄마냄새를 유리병에 가둬두고 싶어”라고 하성이가 잠자기 전 달달한 멘트를 날렸다.

이런... 작업멘트는 어디서 배운 거니.. 혹시 꾸러기?? 허쫘은 말로 나에게 전한 이 고백이 내 심장을 말캉말캉하게 만들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죽으면 냄새를 못 맡으니 그때 꺼내서 맡을 꺼라고 이야기 한다. 진짜 컷다.. 엄마의 그날도 벌써 생각하고 말이다 T T

하성이 하온이가 꾸러기 학교에 다닌지 두 해가 지났다. 코로나와 함께한 꾸러기생활이 녹록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보호받으며 몸과 마음이 성큼 자란 것을 느낀다. 하성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꾸러기학교는 각자의 냄새를 뚜렷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곳이다. 냄새보다는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 후각은 직접적으로 대뇌로 전달되기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익숙했던 향수를 맡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때 그 추억 속에 머물게 되는가보다. 누구에게는 그 향기가 행복으로, 누군가에게는 슬픔으로 다양하게 다가오지만 분명한건 나 스스로가 좋은 냄새로 남고 싶다는 것이 아닐까..?

최근 5-7세 평생의 인성이 결정됩니다, 4-7세 이 시기보다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등 많은 육아서적들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꾸러기 시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방학교에서도 꾸러기가 꽃이 되어 공동체에 웃음꽃을 날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흙, 풀, 꽃, 무엇보다 사람냄새를 맡으며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4명의 꾸러기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했던 2022년은 꾸러기 역사상 손꼽힐 것 같다.

“친구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하면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더 깊이 있게 한명 한명의 향기를 만들어 주고 계셨다. 마스크가 항상 코 위에 걸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향기를 찾아가게 해주신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표정과 몸짓 관계의 이해 등 적절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아이들을 통해 느낀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랄까 채워주시고 살피셨던

배움과 가르침

마음까지도 아이들의 행동에서 볼 수 있어 충분히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긴긴 방학기간이다. 서로의 향기에 취해 같이 놀던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립고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나도 그리운 향기가 있다. 또 누군가에게 그리운 향기일 것이다. 이곳, 이 장이 그런 곳인 것 같다. 어릴 적 소꿉놀이했던 친구가 생각나는 곳, 꽃이 피면 숨바꼭질이 생각나는 곳, 경운기소리를 들으면 아빠가 생각나는 곳, 비가 오면 질퍽이는 흙과 장화가 생각나는 곳, 단풍을 보면 소풍이 생각나는 곳, 설거지통을 보면 잔칫집과 엄마가 생각나는 곳, 눈이 오면 십자가 동산 썰매가 생각나는 곳, 또 사랑했던 사람이 사무치게 그리운 곳, 향기가 진해서 더 오래 기억되는 곳이다.

7살에 올라가는 하성이 하온이가 갖게 될 향기와, 또 이곳의 향기가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한 해이다. 이 작은 몸집의 꾸러기들이 내뿜는 향기가 어마어마하다. 아쉽게도 꾸러기는 못 다녔지만 나름의 향을 갖고 살아가는 어른의 시기에 놓인 나를 돌아보며, 좀 더 사랑의 향기를 낼 줄 알고, 친절함과 베품의 향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향으로 2023년을 살아가고자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면, 나를 사랑해주었던 그분의 향기를 쫓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의 향기를 맡으려한다. 마지막으로 이 답변을 하고 싶다.

“엄마도 너의 냄새가 그리울 것 같아서, 병에 넣어두고 오래 맡고 싶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후 2:14-17 개역개정)

2023년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을 내는 값진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꾸러기학교 권하성 권하온 엄마 차태옥 사모

당 직

당직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동체를 돌아보기도 하고 방문하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첫 손님은 마을 이장님입니다. 마을에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서명을 받기 위해 다녀가셨습니다. 허 집사님은 어느 샌가부터 오셔서 오늘도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눈을 치우고 들어 오신 김 집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땀을 뻘뻘 흘리셨습니다. 함께 사무실에 있는 모과차를 마시며 한숨 돌려봅니다.

공동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장 권사님과 최 집사님이 오셔서 사무실과 부엌에 활기를 더합니다. 한참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번에는 식빵에 땅콩잼을 발라서 먹으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중간에는 사무실 앞에 벗어둔 제 신발이 사라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쁜 누군가가 빌려 신고 갔나보다 했는데, 장 권사님의 신발 한 짝도 사라져서 다른 신발을 빌려 신고 나가봤더니 앞마당 중간쯤에 권사님의 신발이 누워있습니다. 루의 막동이 두 마리가 그 옆에 있는 걸 보니 딱 봐도 개네가 범인입니다. 허 집사님께 “개들이 물고 간 제 신발 못 보셨나요? 어디 있을까요?” 했더니 “개네들 집 앞에 있겠지.” 하십니다. 정말?? 눈길을 걸어 뒤 운동장에 갔더니 과연 마당 한가운데에 신발이 두 짝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데에 뒤서 고맙다 생각하며 주워가는 나를 루가 뻘뻘 쳐다봤습니다.

오후 4시. 교육공동체의 지킴이 약속 시간입니다. 교육관으로 가 보니 패딩코트로 무장하신 김영화 권사님께서 꽃꽂이 중이십니다. 추우나 더우나 매주 수고해 주셔서 이번 주에도 우리 모두 고운 꽃을 봅니다. 교육공동체 식구들이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하면서 여기저기를 쓸고 닦고 정리하고, 쓰레기장에도 들러서 청소를 마무리하고 보니 당직의 업무 시간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은 설거지네요. 하하~”

이렇게 춥지만 따뜻하고, 조용하고도 시끄러운 오늘 당직 날이었습니다.

생활공동체 그루터기사랑방 전선희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210장 219장

성 경 : 사무엘하 15장 1-6절

말 씬 :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자

중보기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코소보, 세르비아의 평화를 위해>
코소보 북부에서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 주민 간 민족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없이 있는 마을을 위한 기도>
 -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 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이루어지도록,
 - 함께 하는 식구들이 건강하고 신앙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 기대연 컨퍼런스 참여하는 지체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 새해에도 무림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새해 첫날을 주일 예배로 시작하게 된 것을 보니 2023년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라는 새로운 표어를 마음에 담으며 다시 한번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엔 서로를 사랑하여 만나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공동생활 식구들은 시무식을 시작으로 공동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학교 선생님들은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에 1/4-1/6까지 참여하여 새 힘과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생활공동체 영성수련]으로 한 주간 동안 함께 모여 성서 일기와 공동생활 원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큰 은혜를 누리고 삶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